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2월

선교편지 제 10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 정착을 한지 벌써 10여년이나 되는 까닭에 이곳 생활에 많이 익숙할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정이 평범(?)치 않아서, 아직 가 보지 못한 금년 한해도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이 곳 땅 끝에 베푸실 은혜와 축복이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전 주님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 주시고,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귀한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한해 동안 전 교우가 주님을 알고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경험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현지 노래에 '신구약 성경 목록'을 가사로 대치하여 매주일 아침 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르고, '매일 성경 읽기표'의 일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지나 왔습니다. 완독을 한 교우들에게 매월 푸짐한 상품으로 시상을 하며 격려를 하는 가운데, 마침내 한 해 동안 11명의 교우들이 신구약 전체를 끝까지 완독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완독을 한 모든 교우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경 1독을 하는 믿음의 큰 진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신년 첫 주에 제직 임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4명의 제직이 임명되어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감사하게도 19명의 제직이 임명 되었습니다. 제직 부서도 작년보다 더 세분화 해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 질 수 있도록 매주 제직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지역별로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주중 성경 공부와 더불어 지체들이 서로를 돌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금년에는 장년을 18개의 '목장'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금년에는 18명의 목장 리더를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부지런히 주의 길을 따라 감으로 인하여 금년 한 해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달려 갑니다. 아무쪼록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척박한 이곳에 복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려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했수로 5년째를 맞이하는 '장학 사역'이 많은 변화와 함께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디고스의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장학 사역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퍼져서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비교적 먼 거리의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디고스 고등학교', '익핏 고등학교', '발락 고등학교' 와 지프니를 두 번 이상 갈아 타고 와야 하는 '반살란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교도 초기에는 인근의 농업 대학인 '스파마스트 대학'이 전부 였는데, 이제는 '코 헤수수 대학', '민다나오 대학', '폴리텍 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대학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게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직접 상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장학 사역을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했었는데, 이제는 장학생 전담 사역자가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했을 때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2018년을 맞이하여 장학생들 가운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8개의 부서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익핏에일교회의 예배를 돕는 예배부원등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기존의 학생들과 전혀 색깔이 다른 장학생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디고스에일교회를 잘 섬겨 왔던 '세리' 집사님이 인근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장학생 그룹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두 자녀의 어머니인 '세리' 집사님은 학창 시절에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늘 아쉬움 가운데 있다가, 거의 1년동안 저와 함께 의논을 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여 금년에 마침내 늦깎이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남편은 일용직으로 여러가지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지만, 생활하기도 버거운 형편 가운데 마침내 꿈을 이룬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공부 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전보다 얼굴이 더 크게 보일 정도로 학교를 다니는 기쁨에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이제 '세리' 집사님은 매 주일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학생들처럼 북백을 어깨에 걸치고 씩씩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국어 (필리핀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후원자들을 통하여 어느덧 62명의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장학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을 통하여 소속된 학생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빚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민 23:20)



작년 12월 23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비와 함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바카카' 지역은 제 어깨 높이 만큼이나 강물이 범람한 까닭에 온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고 휩쓸고 가는 것은 반나절이면 충분 했었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땅이 마르고, 예전의 모습을 찾기 위해 복구하는대는 한달 이상이 소요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물에 젖어 쓸모없게 되어버린 가재도구들이 동네 곳곳 마다 쌓이고, 배수 시설이 없는 가운데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모기를 포함한 각종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새마을 운동'이라도 해서, 빨리 복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매우 의외로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약 \$60 상당의 구제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 오기 때문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건물도 이번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지만, 동네의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벽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바닥 전체에 장판을 깔았었는데, 이 또한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 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사용된 각종 집기들도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실망과 함께 바카카 사역의 향후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생각처럼 빨리 빠지지 않고, 땅이 마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거의 매일 장화를 신고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며 바카카 지역을 방문해 보지만 회복 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카카 어린이 사역은 중단 되고, 마을 어린이들도 종종 진흙밭로 찾아 왔다가 안타깝게도 허탕을 치고 돌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돕는 손길을 보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바카카 사역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을 사람들처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이 없어 쉬고 있는 마을 청년들을 동원했습니다. 차량은 커녕, 그 흔한 오토바이도 마을로 들어 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마을 청년들이 모든 자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서 마침내 수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상된 벽을 뜯어내어 새 자재로 교체 하고, 전면은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바닥도 이전보다 더 좋은 장판으로 산뜻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책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기들을 들여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책들도 새롭게 비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도 시설과 화장실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화장실도 만들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국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의 5주만에 수리가 완료되어,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통과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비록 이슬람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카카 교회'를 이루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바카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익핏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바카카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5.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